

영화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대공습

3·4월은 극장가의 비수기로 꼽힌다. '작은 영화'를 즐겨 보는 관객들은 3~4월 시즌 이야기로 달콤한 시간이겠지만 대부분의 관객들 사이에서는 '볼 만한 영화'가 없다는 푸념이 이어졌던 게 사실.

지난 1일 전세계에서 처음으로 개봉한 '스파이더맨 3'을 시작으로 할리우드 블록버스터들의 대공습이 시작되면서 극장가가 북적이고 있다. 5·6월 중에만 '캐리비안의 해적' '슈렉' '다이하드' 등 흥행면에서 성공했던 시리즈물들이 줄줄이 개봉 대기중이다.

이실게도 한국 영화로는 '황진이'(6월6일 개봉) 이외에는 큰 영화가 없으며 이창동 감독의 '밀양'(5월24일 개봉) 정도가 기대작으로 꼽힌다.



흥행파워를 과시하고 있는 '스파이더맨 3'

▲스파이더맨 3=여름 시즌을 앞두고 가장 먼저 선보이는 블록버스터라는 선점 효과를 누리고 있는 작품으로 1일 개봉후 4일 동안 200만 명에 가까운 관객을 동원하며 흥행파워를 과시하고 있다.

할리우드 영화 사상 최고의 제작비인 8억 달러를 투입한 대작인 '스파이더맨 3'에는 진짜 스파이더맨의 파워를 뛰어넘는 블랙 스파이더맨과 베놈, 샌드맨 등 새로운 악당들이 출연한다. 피터 파커 역으로는 1·2편의 토비 맥과이어가 그대로 출연하며 커스틴 던스트가 함께 호흡을 맞춘다.

▲캐리비안의 해적-세상의 끝에서=지난해 개봉한 2편이 460여만명의 관객을 동원하는 대박을 터뜨려 올 상반기 개봉하는 블록버스터 중에서 가장 많은 기대를 받고 있는 작품이다.

'캐리비안의 해적'의 최대 매력은 바로 주인공 잭 스페로우 선장의 독특한 캐릭터. 조니 뎁이 열연한 잭 스페로우는 기존의 완전무결한 영웅들과 달리 약점이 많아 오히려 더 사랑스러운 캐릭터다.

전편에서 괴물 크라켄에게 잡아먹혔던 짝을 찾아 나선 동료들의 이야기가 주된 줄거리로 주윤발이 새롭게 출연한다. 23일 개봉.

▲슈렉 3=1편과 2편을 합쳐 600만명을 동원한 '슈렉' 시리즈는 대체로운 패러디로 어른들도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애니메이션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왕위를 계승해야 할 처지가 된 슈레이크이를 파기하 위해 왕위 계승자인 켈빈이 아더 왕자를 찾으러 가는 이야기와 왕국을 차지하려는 프린스 차밍에 맞서는 피오나 공주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백설공주 등 업기 공주들과 슈렉과 피오나의 2세 등 다양한 캐릭터들이 볼거리를 더한다. 6월 6일 개봉.

▲오션스 13=조지 클루니, 매트 데이먼, 브래드 피트 등 한 화면에서 만나기 어려운 호화 캐스팅을 자랑하는 시리즈물이다. '오션스 11'에 비해 다소 주춤했던 '오션스 12'의 부진을 만회하기 위해 이번 편에서는 좀 더 기발한 아이디어로 무장했다.

알 파치노와 앤디 가르시아의 연기가 기대감을 높인다. 6월14일 개봉.

▲다이하드 4=테러리스트로부터 LA 공화, 뉴욕 연방은행 등을 잇따라 지켜낸 존 맥클레인 형사가 돌아왔다. 주연은 역시 브루스 윌리스다. 올해 52세인 브루스 윌리스가 첫 시리즈가 나온 1988년의 날렵한 몸놀림을 보여줄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지는 대목이다. 그가 이번엔 맡은 임무는 세계 인터넷망을 볼모로 한 디지털 테러리스트들을 처치하는 일이다. 6월 28일 개봉.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스파이더맨 3' 등 시리즈물 줄줄이 개봉 한국영화 빈자리 공격...5월 흥행 대결



'슈렉' 시리즈는 대체로운 패러디로 어른들도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애니메이션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주목! 이영화 '아빠'



가슴징한 '장진표 영화'

'장진표 영화'라는 말이 조금도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브랜드 네임을 자랑하는 장진 감독의 작품이다. 15년만에 아들을 만나 단 하루를 함께 보내는 무기수의 애절한 부정을 그리고 있다.

살인 강도 죄로 복역중인 무기수 이강식에 게 15년만에 하루 동안의 외박이 주어진다. 감시는 기억조차 희미한 아들 준석을 만나볼 수 있다는 기대감에 들뜨지만 15년만에 만난 아들과의 사이엔 정적이 흐른다. 하지만 피는 물보다 진한 법. 하루 사이에도 두 사람 사이에서는 차곡차곡 애절한 감정이 쌓이는데...

'킬러들의 수다' '아는 여자' 등에서 보인 기존의 재기 넘치는 이야기와 더불어 눈물이 함께 하는 작품으로 영화 마지막 부분의 '반전'에 대한 관객들의 반응이 다양하다.

코미디 장르에서는 타의추종을 불허하는 흥행력을 과시해온 차승원과 '웰컴투 동막골' '천하장사 마돈나'의 류덕환이 주연을 맡았으며 김지영이 함께 호흡을 맞췄다. (12세 관람가)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극장 '혈오스런...' 등 4편 상영

광주극장이 다양한 느낌의 영화 4편을 17일까지 번갈아 상영한다.

가장 눈길을 끄는 프로그램은 '불광공주 모모코'의 나카시마 테츠야 감독과 '역도산'의 나카타니 미키가 호흡을 맞춘 '혈오스런 마츠코의 인생'.

평범한 중학교 교사였던 히로인 마츠코가 사소한 사건으로 인해 인생의 바퀴까지 전락하는 과정을 무지할 형식을 빌려 경쾌하게 풀어나온 작품으로 서울 개봉 당시 절찬을 받았던 작품이다.

허우 사오시엔 감독의 '쓰리 타임즈'는 대만의 1911년, 1966년, 2005년을 살아가는 연인들의 러브 스토리를 사랑, 자유, 청춘이라는 테마로 엮어낸 작품으로 서기가 주연을 맡았다.

그밖에 김기덕 감독의 작품으로 칸 영화제 경쟁 부문에 초청된 장현 주연의 '숨'과 일본 홋카이도 조선인학교 이야기를 담은 '우라와코' 역시 관객들을 만난다. 네이버 카페 http://cafe.naver.com/cinemagwangju문의 062-224-5858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Table with 2 columns: 영화 (Movie) and 상영극장 (Theater). Lists movies like Spider-Man 3, Pirates of the Caribbean, Shrek 3, Ocean's 13, and The Day After Tomorrow along with their respective theaters.

Real estate advertisements for various agencies including Daedeung, Wudeung, Jeongwoo, Cheonma, National, Alp, and Jeonggyeong. Each ad lists contact info, services, and property listings.